

보험계리사의 전문적 판단, 기술을 넘어선 ‘윤리’와 ‘책임’

서 정 수

계리실무기준위원회 위원장
알앤에이에널리틱스 금융아카데미 원장



오늘날 규제 환경은 '규칙기반(Rules-based)'에서 '원칙기반(Principles-based)'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IFRS 17과 K-ICS의 도입, AI의 활용 등으로 계리사의 업무는 더욱 넓어지고, 복잡해 졌으며,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계리사회(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에서 공개초안 형태로 발표한 “국제계리실무노트(International Actuarial Note) 300 - 전문적 판단(Professional Judgement)”은 계리사의 판단이 지니는 본질적 의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전문적 판단의 체계

전문적 판단은 단순한 ‘전문가 의견(expert judgment)’과 구별된다. 전문가 의견은 특정 교육, 지식, 경험 및 전문성에 기반을 둔 반면, 전문적 판단은 윤리 강령 등 전문성 표준에 입각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뜻한다. IAN 300에 따르면 계리사는 공익은 물론 주요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실히 충족하기 위해, 기본 교육 요건, 계리 실무기준,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전문행동 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결합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계리사의 전문적 판단은 전문 지식과 경험 뿐 아니라, 전문행동 강령, 윤리강령(Ethical Guidelines), 그리고 공익에 대한 책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결과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판단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커뮤니케이션의 적절성, 이해상충 회피 등 계리사에게 요구되는 포괄적 책임과 윤리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계리 모델을 선택할 때 단순히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모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모델을 채택하는 것은 판단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충분한 전문적 판단이 결여된 것이다. 판단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각 모델의 장단점과 한계까지 고려하며,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성 원칙 및 자기점검

계리사는 과거 및 현재의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불확실성을 반영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판단은 단지 기술적 지식에 그치지 않고, 진실성, 역량과 주의, 법적 준수, 공정성, 의사소통이라는 다섯 가지 전문성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IAA는 정회원국의 계리사들이 자국의 윤리강령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IAN 300은 이를 토대로 '전문적 판단'을 위한 자기 점검 질문(self-assessment questions)을 제시한다. 이는 판단의 정당성과 윤리적 타당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도구이다.

전문성 원칙 및 자기점검 질문

전문성 원칙	질문 내용
진실성 (Integ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가? • 업무가 나의 윤리적 또는 도덕적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가?
역량 및 주의 (Competence and C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 필요한 경우, 다른 유능하고 경험 많은 전문가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가?
법적 준수 (Compli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하려는 업무가 어떤 규정이나 전문 표준을 위반하는가?
공정성 (Imparti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당사자로부터 업무 결과에 영향을 미칠 부당한 압력을 피할 수 있는가? • 업무와 관련된 어느 당사자가 제공한 데이터나 기타 정보에 대해 • 전문가적 의구심(professional scepticism)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의사소통 (Commun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고객, 이사회, 기자 회견, 법정 등에서 업무 결과를 효과적으로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가?

판단의 기반은 데이터, 가정 및 모델의 검증

계리 업무에서 판단의 상당 부분은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오늘날 계리사가 접하는 데이터 환경은 방대하면서도 불완전하거나 편향된 경우가 적지 않다.

IAN 300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누락, 이상치, 허위 데이터 등의 문제 상황에서 계리사가 던져야 할 구체적인 질문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 방식이 특정 시점 이후 변경되었다면 그 영향 여부를 분석해야 하며, 합성 데이터나 AI 기반 데이터의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특성과 한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ESG 평가나 헬스케어보험의 리스크 평가처럼 비정형 또는 대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계리사의 ‘판단’은 단순 수치를 넘어서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계리 업무는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포함한다. 따라서 어떤 모델을 선택하고, 어떤 가정을 설정하며, 그 결과를 해석하는 전 과정은 일관된 판단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AN 300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 판단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자기 점검을 제시한다(IAN 300 일부 발췌):

- ✓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 ✓ 선택한 모델은 목적에 부합하는가?
- ✓ 설정한 가정은 실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 모델 결과에서 변수에 대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추고 있는가?
(민감도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테스트 등의 수행 여부)
- ✓ 도출된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자기 점검은 특히 ‘원칙기반 규제’ 하에서 계리업무의 핵심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처럼 매뉴얼이나 규칙에 의존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제 계리사의 ‘판단’이 회사와 고객의 재무적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판단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

모든 판단은 궁극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완성된다. IAN 300은 판단의 전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고, 기술적 용어를 넘어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판단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한국 계리실무기준 제1호(KSAP 1) 또한 “계리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제시하여, 문서화된 의사소통을 통해 판단의 근거와 결론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맺음말

계리사의 판단은 단순히 숫자와 모델의 조합이 아니다. 데이터, 모델, 가정, 해석,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책임이 요구되는 고차원의 실천이며, 동시에 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공익적 책무이기도 하다. IAN 300은 이러한 판단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계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요구한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전문적 판단을 정당하고 책임 있게 내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찰만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계리사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참고] ISAP과 IAN 비교

국제계리실무기준(ISAP: International Standard of Actuarial Practice)은 국제계리사회(IAA: 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가 제시하는 국제적 기준으로, 계리사에게 제공되는 원칙 중심의 지침서이다. 반면, 국제계리실무노트(IAN: International Actuarial Note)는 보험계리 관련 새로운 주제에 대한 실무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교육적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한국계리실무기준 제1호 일반(KSAP 1)은 IAA의 국제계리기준(ISAP 1)을 기반으로 한 원칙중심의 기준이며, 데이터, 가정, 모델, 결과 해석 등 IAN 300과 중복되는 영역을 포괄한다. 특히 외부 감사 대응 및 문서화를 중시하며,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설명 가능한 구조를 강조한다. 반면, IAN 300은 실무 수행자의 자문 도구로서 자기 점검 질문(self-assessment questions)을 통해 판단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한다. 양자는 상호 보완적이며, 계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두 축을 형성하고 있다.